'원스'

'초속 5센티미터'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포 미니츠'

늦가을 발길 붙잡는 '작은영화'들

올 하반기 극장가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중 한편이 1억 5천만원으로 제작된 뮤지컬 영화 '원스'다. 지난 추석 시즌 서울에서 조용히 개봉한 이 영화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객 10만명의 관객을 모아 인디영화 관객 동원 신기록을 세웠다.

'작은 영화'들이 뜨고 있다.

수십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작품을 만들고, 수백개의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는 '와이드 개봉'이 대세인 요즘 단 몇개의 스크린에서 '지속적으로' 영화팬들의 발길을 붙잡는 '작은 영화'의 선전이 반갑다.

광주극장 상영 '원스' 관객 1,800여명 넘어
日'…도쿄타워'·獨 '포 미니츠' 잔잔한 인기

롯데시네마 첨단점 내달 10일 인디영화 축제

'원스'는 광주에서도 선전중이다. 서울에서 관객을 만난 지 무려 7주나 지나 지각 개봉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다. 현재 광주 극장 한곳에서 상영중인 '원스'는 개봉 9일만에 관객 1천명을 넘었다.

하루 2~3차례 교차상영되는 등 상영횟수가 작지만 16일까지 모두 1천800여명이 다녀갔다.

가난한 뮤지션인 그와 그녀가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느끼는 과정을 소박하지만 아릿하게 그린 '원스'는 무엇보다 음악이 주인공인 영화다. OST 음반 역시 1만장 넘게 팔리면서 대박을 터트렸다.

광주극장에서 상영중인 '오다기리 죠의 도쿄타워'와 '포 미니츠' 역시 광주 지역의 일반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는 개봉하지 않은 작품이다.

어머니와 아들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오다기리 죠의 도쿄타워'는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잔잔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독일 영화 '포 미니츠'는 80 평생을 여자 교도소에서 피아노 레슨을 해온 거트러드 크뤼거라는 독일의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다.

크뤼거와 감옥에서 만난 10대 천재 피아니스트 제니의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과 신뢰를 담은 '포 미니츠'는 독일 아카데미영화상 작품상과 최우수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클래식과 힙합, 재즈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이 귀를 즐겁게 하며 특히 영화 제목처럼 마지막 '4분' 동안 제니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이 압권이다.

올 한해 화제가 됐던 인디 영화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롯데시네마 첨단점에서는 오는 12월 10일~12일까지 인디영화 축제 '제 4회 롯데 시네마 삼색 영화제'가 열린다.

'One The Road-3가지 색다른 길에서 마주치는 인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광주에서 보기 어려웠던 인디영화 10편을 집중 상영한다.

'Blue, 길 위를 걷다'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철근 콘크리트', 내몽골을 배경으로 몸이 불편한 남편을 떠나 새 삶을 찾으려는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투야의 결혼',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메종 드 히미코'의 이누도 잇신 감독이 만든 '황색 눈물', '포 미니츠'가 상영된다.

'Yellow-길에서 만나다'에서는 오다기리 죠, 장쯔이 주연의 '오페레타 너구리 저택', 옴니버스 일본 애니메이션 '초속 5센티미터', 최고의 감독 20명이 파리를 배경으로 찍은 '사랑해, 파리'를 만날 수 있다.

'Red-길에서 벗어나다'에서는 '헤드윅'을 만든 존 카메론 미첼의 영화 '숏 버스'와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레이디 채털리' 등이 상영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마을금고 연쇄 습격 사건	
백윤식·이문식이 어설픈 은행털이 강도가 벌이는 블랙코미디.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스카우트	
1980년 야구선수 선동열 스카우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베오울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판타지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안젤리라 졸리가 주연을 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세븐 데이즈	
7일간 한 범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의 사투를 그린 스릴러물.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더 버터플라이	
유괴범을 소재로 한 스릴러물로 피어스 브로스넌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로스트 라이언즈	
톰 쿠르즈, 메릴 스트립, 로버트 레드포드 등 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정치 드라마. 15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 씨너스 전대
색, 계	
리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애정물로 양조위가 주연을 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
세브란스	
잔혹함과 코믹함을 오가는 공포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 콜롬버스(하남), 엔터, 하미
식객	
허영만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김강우·임원희 등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바르게 살자	
장진이 시나리오를 쓴 코미디로 '은행강도 모의 훈련'이 소재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첨단),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킹덤	
테러리스트와 FBI 요원들의 대결을 그린 액션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CGV(첨단), 엔터 롯데(첨단), 콜롬버스(하남)

주목! 이 영화

'스카우트'

영화 '스카우트'는 '광주 사람'이면 '두배'는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여기다 '야구팬'이라면 즐거움은 또 곱절이 된다.

광주 출신인 '광식이 동생 광태'의 김현석 감독이 8년 동안 묵혀 두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옮긴 '스카우트'는 1980년 '광주의 자랑'이었던 광주일고 선동열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대학 야구부 직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다.

개봉 전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화려한 휴가'와 자주 비교됐던 '스카우트'는 '화려한 휴가'와는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다.

시대 배경이 1980년대인 까닭에 암울한 기운을 배제할 수는 없고, 그 흐름이 주인공들의 삶에 예기치 않게 개입하기는 하지만 작품의 주된 흐름은 평범한 한 남자의 순애보다. 여기에 '야구'라는 양념이 알맞게 들어가 있다.

라이벌 대학에 연일 패배를 당한 A대학은 초상집 분위기다. '최동원' 졸업 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오직 하나의 대안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광주일고 3학년생 선동열이다. 하지만 선동열은 이미 라이벌 대학에서 '작업'을 마쳐둔 상태.

이 때부터 스카우터 호창은 선동열과 계약을 따내기 위해 9박 10일간 광주에 머물고, 그곳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7년 전 헤어진 여인 세영을 만난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다. 주인공 '호창' 역의 임창정은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맞춤 연기를 보여주고 엄지원의 연기도 안정적이다. 또 건달로 출연한 박철민과 백일섭의 연기는 웃음을 준다.

직접 극본을 쓴 김 감독의 맛깔스런 대사가 잔잔한 웃음을 전해주며 초등학생 이종범 등 실명으로 등장하는 의외의 인물도 재미를 준다.

특히 자신의 신세를 어엿한 광이면서도 막내 동생 '비 쌍피'보다 대우 받지 못하는 '비광'의 신세로 묘사한 박철민의 '비광송'이 압권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18 영화… 아니, 야구영화